



고도화하는 워크플로의 잠재력 전공정 최적화 염두에 두고 ‘효율화’·‘자동화’ 집중

워크플로의 잠재력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워크플로는 생산공정을 시물레이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영정보를 링크해 경영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글 | 김상호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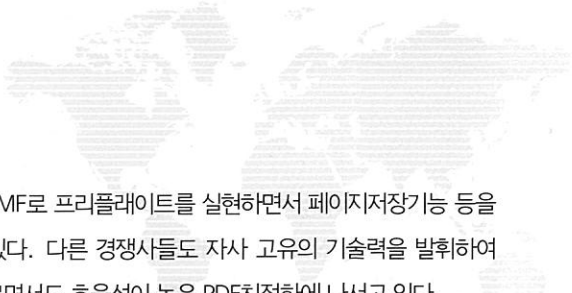
현재 워크플로의 지향점, 특히 일본 인쇄업계에서의 지향점은 ‘효율화’, ‘성력화’, ‘자동화’를 키워드로 다채로운 시스템을 검증하는 것이 되고 있다. 검증의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옵션을 구성하여 통합워크플로를 유저에게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메이커들은 자사의 워크플로에 최적화된 방법을 고객들에게 교육할 뿐 아니라 인쇄후가공공정으로까지 시야를 넓혀서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부분공정 최적화에서 전체공정 최적화로 진화하고 있는 워크플로의 최신동향을 소개한다.

워크플로 4가지 키워드

지난해 연말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서 일본경제

를 재생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아베노믹스가 시동을 걸었고 일본 경제는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는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침체에 빠져있던 일본 인쇄업계는 ‘경제 재생’의 온기가 인쇄업계까지 불어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월에 있었던 ‘page2013’에서 3일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6만4760명이라는 관람객이 운집해 참가업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에 일본 인쇄업계 관계자들은 오랜만에 열기를 보인 배경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최근 제조업체의 상품명이나 캐치플레이어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효율화’, ‘성력화’, ‘합리화’, ‘자동화’라 불리는 솔루션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트렌드를 이번 현상의 키워드로 규정했다.



국제금융위기 후의 불황으로 체력이 떨어진 일본경제는 초유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결정타를 맞고 그로기에 몰리는 권투선수 같은 처지에 놓였으며, 이후에는 강력한 절전시책과 원부자재의 가격상승에 압박을 받았다. 더욱이 '경비절감'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환경에 처한 것이 아베노믹스가 시동을 걸기전에 처해 있던 일본 인쇄업계의 모습이었다. 그런 환경에도 '효율화'를 비롯한 4가지의 키워드를 실현하는 것은 단편적인 효율성 추구를 넘어서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 인쇄업계는 다양한 최신 워크플로시스템을 적용하고, 복잡한 옵션기능을 적절하게 조합해 어떤 규모의 회사라고 해도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현하는 연구에 진전을 보이게 되었다.

각사의 차별화 전략

주요 제조업체들은 '워크플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RIP의 운용에 있어서 '어도비 PDF 프린트 엔진'으로 일체화시키고 있는데, 립은 인쇄솔루션으로서 DTP로 작성된 추상적인 데이터를 CTPL나 모니터 등으로 묘사하고자 화소를 변환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일본인쇄업계의 4대 메이커인 아그파(아포지), 후지필름(XMF), 코닥(프린너지), 스크린(에쿠스)은 각기 소프트웨어 상의 설계도를 컴퓨터로 실행하는 형식으로 변환시키고 있다.

이런 변환 과정은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킨다는 단순한 의미외에도 '통역'이나 '번역'이라는 의미도 있다. 예를 들면, 명작 영화나 드라마가 번역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립은 PSL나 PDF를 통역, 번역한다. 즉, 출력 데이터를 변환한다는 것은 통역이나 번역처럼 데이터의 분위기나 성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동번역기나 통역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렌터링엔진이 각사의 차별성이 없어진 지금 시점에서 주요 4대 제조사들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차별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이고 있다. 어도비 PDF 프린트 엔진 2.5에서 렌터링하기 전에 립에 입력하는 파일(DTP로 작성되기전의 PDF)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 사의 노하우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이는 어도비 PDF를 이용한 출력결과물이 원본에 비해 미묘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자측에서도 내부 설정이나 최적화하는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출력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PDF최적화와 부가기능의 고도화

PDF의 종류는 각사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으나 어도비사의 제품군이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 아그파의 아포지는 프리플레이트의 범용성이 높은 자사만의 기능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후

지필름도 XMF로 프리플레이트를 실현하면서 페이지저장기능 등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경쟁사들도 자사 고유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타사와 다르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PDF최적화에 나서고 있다.

한편으로 각사들은 편집과 제작에 있어서도 각사의 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있으며 기존의 시리즈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캐논의 경우 색수, 용지, 부수, 납기 등을 고려해 대용용지를 이용하더라도 자동화작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스크린은 작업과정 중에서 자사의 제품군을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연계성이 좋은 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 제품에 비해서 복잡한 조작을 대폭적으로 줄인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코닥은 다기능화와 성력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과거 데이터와 현재 작업하는 데이터의 공통적인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립의 활용을 극대화했다.

웹 솔루션의 진화와 각사들의 워크플로 전략

일본 인쇄업계에서 웹을 이용한 프린팅은 이미 도입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각사들은 자사 고유의 제품군과 기술력을 앞세워 고객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고객들을 향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각 메이커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데이터의 입력과 교정, 검판 및 승인에 이어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일원화해서 관리한다는 것에 맞춰지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면 각 사는 워크플로의 전체적인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워크플로의 안정성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단순화, 안정화한다든가 잉크나 소모품의 잔량을 알기 쉽게 표시한다든가 하는 소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역시 통합화, 일원화된 워크플로 관리 및 색 최적화 및 효율적인 데이터의 사용에 맞춰지고 있다. 각사가 자사의 제품군이 가장 효율적임을 강조하고 있음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인쇄업계는 앞으로 워크플로를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물론 특정한 제조사 한 곳도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리는 없지만 자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납기 부문, 거래처가 요구하는 인쇄물의 품질 수준,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 자동화의 진전도 등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한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에서 제작한 인쇄물의 품질을 결정하고 회사 전체의 작업비용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워크플로 시스템의 구입은 신중한 가운데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일본인쇄정보 2013년 4월호